



MMCA Film & Video

국립현대미술관
MMCA필름앤비디오

아트 오브 더 리얼 – MMCA
Art of the Real – MMCA
2016. 9. 21 – 10. 23

국립현대미술관 x 링컨센터 필름 소사이어티
2016 특별 협력 프로그램
MMCA Film and Video x
Film Society of Lincoln Center

개막식

2016. 9. 21 (수) 오후 4시 30분

장소 MMCA필름앤비디오

개막작 <하나.둘.셋>

Opening Ceremony

Sep. 21 (Wed) 4:30 p.m.

Venue MMCA Film and Video

Opening film *One.Two.Three*

아티스트 토크

2016. 9. 23 (금) 3시

장소 MMCA필름앤비디오

감독 쥐안치
(<변방의 시안> 상영후 토크 진행)

Artist Talk

Sep. 23 (Fri) 3:00 p.m.

Venue MMCA Film and Video

Artist Ju Anqi
(Artist talk will be followed after screening
of *Poet on a Business Trip*)

포럼

2016. 9. 24 (토) 오후 4시

장소 MMCA필름앤비디오

주제 관점의 배후: 하이브리드 시대의 논픽션 영화

패널 레이첼 레익스 (프로그래머)
김소영 (영화감독, 교수)
곽영빈 (미술평론가)

Forum

Sep. 24 (Sat) 4:00 p.m.

Venue MMCA Film and Video

Theme Forgetting Objectivity in the Age
of Hybridity

Panels Rachael Rakes (Programmer)
Soyoung Kim (Filmmaker)
Yung Bin Kwak (Art Critic)

프로그램 행사	2	Program Events	2
서문		Preface	
김은희	4	Eunhee Kim	5
레이첼 레익스	6	Rachael Rakes	7
상영시간표	8	Screening Schedule	9

상영작 정보		Program	
안나	10	Anna	10
세컨드 게임	11	The Second Game	11
블러디 빈스	12	Bloody Beans	12
화이트 아웃, 블랙 인	13	White Out, Black In	13
천 개의 태양	14	A Thousand Suns	14
하나.둘.셋	15	One.Two.Three	15
스네이크스킨	16	Snakeskin	16
그것의 의미	17	What Means Something	17
열두 개의 풍경 속 감옥	18	The Prison in Twelve Landscapes	18
죽음은 느리게 전진한다	19	Dead Slow Ahead	19
변방의 시인	20	Poet on a Business Trip	20

MMCA필름앤비디오는 작년 한 해, 독립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비디오아트 등을 아우르는 실험적 영상작업들의 흐름을 소개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베를린포럼익스펜디드—MMCA»와 «아시아 필름 앤 비디오아트 포럼»을 개최했다. 2016년에도 MMCA필름앤비디오는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링컨센터 필름 소사이어티와 협력해 «아트 오브 더 리얼—MMCA»를 공동개최한다.

MMCA필름앤비디오는 링컨센터 필름 소사이어티의 프로그래머 레이첼 레익스와 협력해 11편의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이 작품들은 모두 2000년대 이후 논픽션 영화들의 경향과 쟁점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오늘날 다큐멘터리의 정신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긴다.

2000년대 이후의 논픽션 영화 작업들은 다큐멘터리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불필요해질 만큼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이미지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을 떠나, 가상이미지, 홀로그램, 증강현실의 구현처럼 이미지를 재현하는 기술적 방식의 변화는 실재와 허구가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이미지로 가득찬 세계를 구성하는데 일조한다.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장르적 특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양식 등이 혼재된 근래의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성에 주목하는 다양한 실험적 논픽션 영화들은 전시를 목적으로 한 아티스트들의 영상작업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아트 오브 더 리얼—MMCA»를 통해 소개될 다양한 인종과 국가에서 제작된 11편의 작품들은 다큐멘터리가 현실을 이야기하는 방식, 현실을 구성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특히 상영작 중 1972-75년에 제작된 알베르토 그리피와 마시모 사치엘리 감독의 <안나>와 2016년에 제작된 브렛 스토리 감독의 <열두 개의 풍경 속 감옥> 속에 드러나는 동시대의 복합적인 정치·사회적 현상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른 구성 방식 속에서 같은 질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이탈리아 사회의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안나>에서 느끼는 시네마베리테적 기법이 포착하는 낯것의 거친 순간들과 <열두 개의 풍경 속 감옥>이 절제된 양식 속에 담아내는 미국의 풍경들은 카메라가 기록하는 순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에게 되물고 있다.

«아트 오브 더 리얼—MMCA»를 통해 장르의 구분이 무용한 하이브리드 시대의 논픽션 영화 세계를 경험해보자.

김은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Last year, MMCA Film and Video held the *Asian Film and Video Art Forum*, co-organized by independent Asian curators and the Arsenal-Institute for Film and Video Art, based in Germany, as well as the *Berlin Forum Expanded—MMCA*, with the intention to introduce a trend of experimental video works, ranging from independent documentary, experimental film, and video art and to suggest new discourses along this line. Now in 2016, MMCA Film and Video co-organizes *Art of the Real—MMCA* in collaboration with Film Society of Lincoln Center as part of that project. MMCA Film and Video has selected 11 works in cooperation with Rachael Rakes, a programmer at Film Society of Lincoln Center. All of these works reflect the trends and issues of non-fiction film and video art, and leave us with interesting questions as to the direction and spirit of current documentary.

Contemporary non-fiction film appears in many complex forms, creating dispute as to the identity of documentary itself.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reproducing images such as the virtual image, hologram, and implementation of augmented reality apart from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image,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a world full of vague messages, which cannot be discerned from real to fiction. Thus the recent works mix genre attributes of documentary and fiction, and could be considered to reflect our fragmented and complicated reality as it is today. In addition, various experimental non-fiction films concentrating on individual lives and social relationship already include artist's video works made for the purpose of exhibition in a gallery setting, changing the space of documentary presentation.

The 11 works presented in *Art of the Real—MMCA* were each produced in different places and circumstances, and they pose questions about the cinematic process of documentary in depicting and constructing reality. Among the program selections, if we were to view the complex politics and social phenomena revealed in *Anna* (1972-75), directed by Alberto Grifi and Massimo Sarchielli and director Brett Story's *The Prison in Twelve Landscape* (2016), we would be able to discover the same questions within contrasting mode of configuration. The aspect of Italian society of the 1970's displayed in *Anna*, and the raw, rough moments captured by cinéma vérité style and the scenery of the U.S. held within the controlled form in *The Prison in Twelve Landscape*, ask us how to view any moments recorded by cameras. Through *Art of the Real—MMCA*, we invite you to experience the world of non-fiction films in the age of the hybridity, where genre classification is a thing of the past.

Eunhee KIM
Assistant curator
MMCA Film and Video

«아트 오브 더 리얼»은 저와 프로그램 총책임자 데니스 림이 2014년에 링컨센터 필름 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하기 시작한 연례 논픽션 영화 프로그램으로서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관점에 기반합니다.

매년 4월 두 주 동안 진행되는 이 축제는 현재 알려진 영화감독들과 지금은 부당히 잊혀진 영화감독들의 작품들을 회고함과 동시에 전세계에서 새롭게 발굴된 영화들도 상영합니다.

행사 기획의 측면에서 «아트 오브 더 리얼»의 범위는 동시대 예술과 민속지학과 인류학의 세계, 하이브리드 영화제작, 사운드, 아방가르드 영화 등으로 확장됩니다. 이 행사를 위해 선정된 작품들 중 많은 작품이 다양한 방식들 사이를 넘나들거나 장르적 구분을 거부합니다. 이전에 개최되었던 «아트 오브 더 리얼»에서는 벨기에 출신 프랑스 영화감독 아녜스 바르다, 미국 영화감독 브루스 베일리, 하버드 감각민속지연구소의 작품들로 회고전을 개최했었고, 에이미 시겔과 엘리자베스 수브린과 같은 미국 영화감독들과 그들의 과거 작업을 아우르는 포럼을 열었으며, 재현의 구조적 양식에 전념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이번 첫 협업에서는 올해까지 세 번 개최된 «아트 오브 더 리얼»에서 상영되었던 작품들 중 11개의 작품을 선정 소개합니다. 동시대 작품들에 집중된 이번 «아트 오브 더 리얼—MMCA»는 스타일과 접근법의 다양한 결합과 오늘날 제작되는 논픽션 영화의 역동적인 현주소를 엿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 선정작들에는 브라질 감독 아딜리 쿠에이로스의 <화이트 아웃, 블랙 인>이나 싱가포르 감독 다니엘 후이의 <스네이크스킨>과 같은 Sci-Fi요소가 활용된 작품들 (이 작품들은 사색적이고 시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트라우마를 탐색해나갑니다), 중국 감독 쥐안치의 <변방의 시인>, 프랑스 감독 마티 디오프의 <천 개의 태양>과 같은 준전기적(semi-biographical)이거나 반전기적(anti-biographical)인 작품들, 영국 감독 벤 리버스가 예술가를 탐구한 작품인 <그것의 의미>와 이탈리아 감독들인 알베르토 그리피와 마시모 사치엘리가 함께 만든 1970년대 이탈리아의 장편서사 <안나> (유일하게 영화 아카이브에서 제공한 작품)와 같은 비전형적 방식으로 인물을 묘사하는 작품들, 프랑스계 알제리인 감독 나리만느 마리의 <블러디 빈스> (이 작품은 알제리 전쟁을 영리하게 재연한 시골벽적화면에서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드라마입니다)가 포함되며, 이 외에도 시각적이고 개념적 실험을 분명하면서도 시대에 부응하는 사상들과 결합한 다수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링컨센터 필름 소사이어티는 «아트 오브 더 리얼»을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프로그램이 논픽션 영화를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이첼 레익스
프로그래머
링컨센터 필름 소사이어티

Initiated in 2014 at the Film Society of Lincoln Center by me and Director of Programming Dennis Lim, *Art of the Real* is an annual nonfiction showcase founded on the most expansive possible view of documentary film. Each April, for two weeks, the festival features discoveries from around the world alongside retrospective selections by both known and unjustly forgotten filmmakers. The curatorial reach of *Art of the Real* extends to the worlds of contemporary art, ethnography and anthropology, hybrid filmmaking, sound, and avant-garde cinema. Many of the selected works move between various modes, or evade genre distinctions altogether. Previous editions of the showcase have featured retrospectives with Agnes Varda, Bruce Baillie and Harvard's Sensory Ethnography Lab, career-spanning talks with artists such as Amie Siegel and Elisabeth Subrin, and a thematic series devoted to the structural modalities of reenactment. This inaugural collaboration with MMCA presents eleven selections from *Art of the Real's* three editions to date. Focusing on contemporary works, *Art of the Real—MMCA* offers a diverse mix of styles and approaches, which together begin to constellate the vibrant world of nonfiction moving image production today.

These include science fiction-inflected works like Adirley Queirós's *White Out*, *Black In* and Daniel Hui's *Snakeskin*, which speculatively and poetically investigate historical and present traumas; semi-, or perhaps anti-biographical works such as *Poet on a Business Trip* by Ju Anqi and Mati Diop's *A Thousand Suns*; unorthodox portraits like Ben Rivers' idiosyncratic artist study *What Means Something*, and Alberto Grifi and Massimo Sarchielli's 1970s Italian epic *Anna* (the lone archival contribution to the series); a raucous, mesmerizing collaborative drama that slyly re-casts the Algerian War, Narimane Mari's *Bloody Beans*, along with many others that combine visual and conceptual experimentation with clear, urgent ideas.

We are pleased to bring to MMCA a sampling of this platform for filmmakers and artists past and present who give us a wider view of nonfiction cinema.

Rachael Rakes
Programmer at Large
Film Society of Lincoln Center

상영시간표

2016. 9. 21 — 10. 23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9. 21	22	23	24	25
16:30 개막식	15:00 12 화이트 아웃, 블랙 인 (95min)	14:00 19 변방의 시인 (103min)	16:00 12 포럼 관점의 배후: 하이브리드 시대의 논픽션 영화	15:00 12 열두 개의 풍경 속 감옥 (90min)
17:00 개막작 12 하나.둘.셋 (36min)		아티스트 토크 취안치 감독		
28	29	30	10. 1	2
15:00 12 블러디 빈스 (77min)	15:00 12 천 개의 태양 (45min) 하나.둘.셋 (36min)	15:00 15 죽음은 느리게 전진한다 (74min)	15:00 12 안나 (225min)	15:00 12 그것의 의미 (67min)
18:30 15 스네이크스킨 (105min)				
5	6	7	8	9
15:00 12 천 개의 태양 (45min) 하나.둘.셋 (36min)	15:00 12 세컨드 게임 (97min)	15:00 12 화이트 아웃, 블랙 인 (95min)	15:00 15 스네이크스킨 (105min)	15:00 12 블러디 빈스 (77min)
18:30 19 변방의 시인 (103min)			18:30 12 천 개의 태양 (45min) 하나.둘.셋 (36min)	
12	13	14	15	16
15:00 12 세컨드 게임 (97min)	15:00 15 죽음은 느리게 전진한다 (74min)	15:00 15 스네이크스킨 (105min)	15:00 12 그것의 의미 (67min)	15:00 12 화이트 아웃, 블랙 인 (95min)
18:30 12 열두 개의 풍경 속 감옥 (90min)			18:30 19 변방의 시인 (103min)	
19	20	21	22	23
15:00 12 안나 (225min)	15:00 12 세컨드 게임 (97min)	15:00 12 블러디 빈스 (77min)	15:00 15 죽음은 느리게 전진한다 (74min)	15:00 12 열두 개의 풍경 속 감옥 (90min)

등급

12 12세 이상 관람가

15 15세 이상 관람가

19 19세 이상 관람가

Screening Schedule

2016. 9. 21 — 10. 23

WED	THU	FRI	SAT	SUN
9. 21	22	23	24	25
16:30 Opening Ceremony	15:00 12 White Out, Black In (95min)	14:00 19 Poet on a Business Trip (103min)	16:00 12 Forum Forgetting Objectivity in the Age of Hybridity	15:00 12 The Prison in Twelve Landscapes (90min)
17:00 Opening Film 12 One.Two.Three (36min)		Artist Talk with Ju Anqi		
28	29	30	10. 1	2
15:00 12 Bloody Beans (77min)	15:00 12 A Thousand Suns (45min) One.Two.Three (36min)	15:00 15 Dead Slow Ahead (74min)	15:00 12 Anna (225min)	15:00 12 What Means Something (67min)
18:30 15 Snakeskin (105min)				
5	6	7	8	9
15:00 12 A Thousand Suns (45min) One.Two.Three (36min)	15:00 12 The Second Game (97min)	15:00 12 White Out, Black In (95min)	15:00 15 Snakeskin (105min)	15:00 12 Bloody Beans (77min)
18:30 19 Poet on a Business Trip (103min)			18:30 12 A Thousand Suns (45min) One.Two.Three (36min)	
12	13	14	15	16
15:00 12 The Second Game (97min)	15:00 15 Dead Slow Ahead (74min)	15:00 15 Snakeskin (105min)	15:00 12 What Means Something (67min)	15:00 12 White Out, Black In (95min)
18:30 12 The Prison in Twelve Landscapes (90min)			18:30 19 Poet on a Business Trip (103min)	
19	20	21	22	23
15:00 12 Anna (225min)	15:00 12 The Second Game (97min)	15:00 12 Bloody Beans (77min)	15:00 15 Dead Slow Ahead (74min)	15:00 12 The Prison in Twelve Landscapes (90min)

Ratings

12 Under 12 not admitted

15 Under 15 not admitted

19 Under 19 not admitted

안나

알베르토 그리피, 마시모 사치엘리 | 이탈리아 | 1972-1975 | 225min
| DCP | B&W

볼로냐시네데카에 의해 최근 복원된 이 놀라운 4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는 두 감독이 로마의 나보나 광장에서 만난 16세 노숙자 임신부 안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장면들은 반투명의 묘한 흑백 이미지 구현이 가능한 당시 최신식 비디오로 촬영됐으며 아름답으면서도 상처받은 존재, 그래서 자주 멍한 모습의 안나와 그런 안나에게 인간적인 연민과 작가적 호기심으로 다가가는 감독들의 상호작용을 다큐멘터리로 담아냈다. 솔직한 시네마베리테와 달리 두 감독은 사실적 묘사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들도 작품의 연대기 안에 적극 개입한다. 안나와의 첫 만남을 재연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촬영 대상을 연출하거나 심지어 조명 담당 스태프를 출연시켜 안나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카메라 밖에서의 개입을 만들어낸다. 안나는 집안의 장면과 광장 뒤 카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 사이에 등장한다. 특히 영화의 핵심 주제인 ‘의무와 개입’은 광장에서 안나가 히피, 불량자, 부르주아, 터프한 젊은 남자들과 나누는 논쟁을 통해 표출된다. 이러한 장면들은 감독과 피사체, 정부와 시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문제를 아우른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 국립영화 아카이브, 볼로냐시네데카, 그리고 알베르토그리피협회에 의해 복원되었다.

Anna

Alberto Grifi, Massimo Sarchielli | Italy | 1972-1975 | 225min
| DCP | B&W

Recently restored by the Cineteca di Bologna, this astonishing nearly four-hour documentary centers on the titular pregnant, homeless 16-year-old whom the filmmakers discovered in Rome's Piazza Navona. Mainly shot on then-newfangled video (which gives the black-and-white images a ghostly translucence), it documents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beautiful, clearly damaged, often dazed Anna and the directors, who take her in partly out of compassion and partly because she's a fascinating subject for a film. Far from straight forward vérité, this self-implicating chronicle includes reenactments of the first meeting, explicit attempts to direct its subject, and frequent intrusions from behind the camera (not least the emergence of the film's electrician as a love interest).

Anna cuts between domestic scenes and café discussions back in the square, where the unruly cross talk among hippies, bums, bourgeoisie, and angry young men touches on the movie's key themes of obligation and intervention: between filmmakers and their subjects, the state and its citizens, fellow members of society. Restored by Cineteca Nazionale and Cineteca di Bologna with Association Alberto Grifi.



세컨드 게임

코르넬리우 포룸보이우 | 루마니아 | 2013 | 97min | DCP | Color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작 <경찰, 형용사>로 잘 알려진 코르넬리우 포룸보이우 감독은 <세컨드 게임>에 대해 “이 영화는 1988년 12월 3일에 열린 부쿠레슈티의 라이벌팀, 슈테아우아와 디나모의 축구시합”이라며 “나는 전직 축구 심판인 아버지와 함께 25년이 흐른 후 이 경기를 다시 봤다”고 설명한다. TV 화면에서는 역사적인 경기가 원본 그대로 펼쳐지는 가운데 포룸보이우와 그의 아버지의 코멘터리는 이 경기가 숨길 수 없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야심찬 영화의 진정한 목표는 아카이브 이미지 위로 들리는 화면 밖 부자간의 코멘터리가 축구와 영화 사이의 쓸쓸한 유사점을 발견하게 하는 데 있다. 또한 파악하기 힘든 과거의 사건들이 곧 우리 부모들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The Second Game (Al Doilea Joc)

Corneliu Porumboiu | Romania | 2013 | 97min | DCP | Color

“This film is a football match between two Bucharest rival teams, Steaua and Dinamo, which took place on the 3rd of December, 1988,” says Corneliu Porumboiu, the acclaimed director of *Police, Adjective*. “My father was the referee. We rewatched the match together, some 25 years later.” This historic game, presented in its original televised form with commentary from Porumboiu and his father, proves to contain a not-so-hidden political resonance. Behind the archival images, the off-screen commentaries, and the wry parallels between soccer and cinema lies the true subject of this ambitious enterprise: the elusive ways in which we relate to the past and, to a certain extent, to our parents.



블러디 빈스

나리만느 마리 | 알제리, 프랑스 | 2013 | 77min | DCP | Color

한 무리의 알제리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즐겁게 뛰어논다. 하지만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놀이는 <파리대왕>과 <기관총부대>에서처럼 순식간에 알제리 독립전쟁의 재연으로 변해간다.

도둑고양이나 게릴라 혁명부대처럼 야밤의 거리를 배회하던 아이들은 프랑스 군인 한 명을 ‘붙잡은’ 뒤, 그에게 반강제로 자신들의 주식인 콩을 먹이며 이 군인이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도록 만든다.

이 작품은 포스트-식민주의 영화의 몇몇 특징적인 주제들—독립 투쟁에 드는 비용과 이익, 정치적인 투쟁이 식민지 국가의 모든 계층에 가하는 압박, 반란의 성공 여부에 따라 외국인을 향해 달라지는 대중의 태도—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나리만느 마리 감독의 흥미진진한 첫 장편은 장 비고와 장 루슈의 작품의 전통을 잇고 있다.

Bloody Beans (Loubia Hamra)

Narimane Mari | Algeria, France | 2013 | 77min | DCP | Color

A group of Algerian children frolic on the beach, but their sunning and roughhousing soon turns into a kind of reenactment of the Algerian War of Independence that plays out as equal parts *Lord of the Flies* and *Les Carabiniers*.

Roaming the nocturnal streets like a cross between a pack of feral cats and a brigade of revolutionary guerrillas, the kids “capture” a French soldier and force him to put himself in their shoes by eating a plate of their much-despised dietary staple the titular legumes.

Revisiting several signature themes of post-colonial cinema—the costs and benefits of fighting for national independence, the strain that political struggle exerts across all strata of a colonized nation, changes in popular attitudes toward foreigners after successful or failed uprisings—Narimane Mari’s exhilarating first feature counts the work of Jean Vigo and Jean Rouch among its key forebears.



화이트 아웃, 블랙 인

아딜리 쿠에이로스 | 브라질 | 2014 | 95min | DCP | Color

이 영화의 배경인 세이란지아는 가난한 자들이 수도 브라질리아에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라질 정부가 세운 도시이자 아딜리 쿠에이로스 감독의 독특한 다큐픽션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에 담긴 인종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공상 과학적인 요소와 1986년 경찰의 폭력으로 장애를 갖게 된 두 남자의 증언이 뒤섞인 형태로 표현된다. 한 연구원이 미국에 반박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두 남자는 그들의 경험을 증언하게 된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는 테러 행위가 모의 된다. 아프로퓨처리즘*에 대한 쿠에이로스 감독의 태도는 예리하고 독창적이면서도 철저하게 동시대적이다.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역사와 판타지, 과학, 우주론 등을 테크노에 접목한 문화 미학

White Out, Black In (Branco Sai, Preto Fica)

Adirley Queirós | Brazil | 2014 | 95min | DCP | Color

Set in Ceilândia, a city established by the Brazilian government to prevent the poor from settling in the capital of Brasília and the location for most of director Adirley Queirós’s unique docufictions, this biting critique of race mixes science fiction with testimonials from two men physically disabled by police violence in 1986.

A “researcher” from the future comes to collect evidence against the state, and the pair give testimonials of their lived experience; meanwhile, an act of terrorism against this “apartheid” is being plotted.... Queirós’s take on Afrofuturism is subtle, ingenious and utterly contemporary.



천 개의 태양

마티 디옴 | 프랑스, 세네갈 | 2013 | 45min | DCP | Color

<천 개의 태양>은 마티 디옴 감독의 삼촌인 지브릴 디옴 만베티 감독이 연출한 아프리카 고전 영화 <투키 부키>에서 주연을 맡았던 비전문 배우, 마가예 니앙의 초상화이다.

다큐멘터리와 판타지가 결합된 이 작품은 삼촌의 걸작에 대한 마티 디옴 감독의 오마주로서 니앙의 1973년 작 <투키 부키>를 상영하는 것부터 시작해 세네갈에 있는 그의 농장까지의 여정을 따라간다. 노인이 된 니앙은 애타게 열망했지만 회미해져 버린 과거와 그가 여전히 희망하는 미래의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다.

A Thousand Suns (Mille Soleils)

Mati Diop | France, Senegal | 2013 | 45min | DCP | Color

A Thousand Suns is a portrait of Magaye Niang, the nonprofessional actor who played the lead in the African film classic *Touki Bouki*, which was directed by Diop's uncle, Djibril Diop Mambéty. Fusing documentary and fantasy in homage to her uncle's masterpiece, Diop follows Niang from a screening of that 1973 film to his farm in Senegal as the old man comes to terms with the vanished past he longs for and the future he still hopes is possible.



하나.둘.셋

뱅상 미센 | 벨기에 | 2016 | 36mins | DCP | Color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의 화제작이었던 뱅상 미센 감독의 <하나.둘.셋>은 화려하고 강렬한 분할 화면을 통해 미술, 음악, 정치활동의 역사가 교차하는 모습을 엮어 내고 있다. 상황주의 인터내셔널 그룹(SI)의 회원이었던 콩고인 조셉 음벨로로 야 음피쿠가 68혁명 때 작곡한 동명의 저항곡이 영상과 함께 극의 몰입을 이끈다.

이 영화의 세 가지 이야기는 점차 밝아지는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서로 맞물려 조화를 이루며 열정적인 룸바 클럽에서 연주되는 듣기 좋은 음악으로 마무리 된다.

One.Two.Three

Vincent Meessen | Belgium | 2016 | 36min | DCP | Color

A highlight from last year's Venice Biennale, Vincent Meessen's gorgeous and haunting split-screen film weaves together intersecting histories of art, music, and political activism through the eponymous protest song, written by a Congolese member of the Situationist International, Joseph M'Belolo Ya M'Piku, in May 1968. The three channels of *One.Two.Three* play off each other like the beautiful melody it gradually revives, culminating in a highly listenable performance inside a fiery rumba club.



스네이크스킨

다니엘 후이 | 싱가포르, 포르투갈 | 2014 | 105min | DCP | Color

다니엘 후이 감독의 <스네이크스킨>은 싱가포르의 현재 모습을 놀랍도록 사실적인 스냅샷으로 포착한 영화인 동시에 싱가포르 역사 속의 유령들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영화적 주술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절묘하게 압축시켜 표현한다. 2066년, 이단 종교에서 혼자 살아남은 생존자는 그의 종교 지도자가 찍어놓은 16mm 영상을 재생한다. 그 종교 지도자는 자신이 싱가포르를 최초로 발견한 영국인 정치가 스텐포드 래플스의 환생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도시의 거리와 항구 이미지가 소리 없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은 사랑, 인종, 혁명, 그리고 말레이 영화 산업에 대해 솔직한 추억담을 나눈다.

Snakeskin

Daniel Hui | Singapore, Portugal | 2014 | 105min | DCP | Color

A striking vérité snapshot of present-day Singapore that doubles as a semi-mystical cinematic incantation conjuring ghosts from the country's history, Daniel Hui's *Snakeskin* ingeniously compresses past, present, and future. In 2066, the lone survivor of a cult projects 16mm footage shot by his divine leader, who claimed to be the reincarnation of Stamford Raffles, the British statesman who founded Singapore. Both living and dead subjects candidly reminisce about love, race, revolution, and the Malay film industry as muted images of the city-state's streets and harbors in 2014 flash by, key locations of the cult's future founding.



그것의 의미

벤 리버스 | 영국 | 2015 | 67min | DCP | Color

<바다에서 2년>, <어둠을 밀어내는 주문> 등의 작품을 통해 고독에 대한 탐구 정신을 보여준 리버스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화가 로즈 와일리가 집에서 작품 활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로즈 와일리에 대한 섬세한 이 초상화는 소극적이지도 과하지도 않게 그녀만의 뛰어난 창작세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영화 중간에는 와일리의 단독 인터뷰 장면이 나온다. 와일리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스케치북을 보여주며 ‘명작이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를 찾아 읽으면서 그녀의 과거 작품에 대해 이야기한다. 화가와 감독, 두 사람의 팬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작품이다.

What Means Something

Ben Rivers | UK | 2015 | 67min | DCP | Color

In the spirit of his previous explorations of solitude (including *Two Years at Sea* and *A Spell to Ward Off the Darkness*), Rivers shows painter Rose Wylie at work—in real time—inside her home. Neither passive nor overly styled, this intimate portrait of an artist truly illuminates her singular creative process. In lone sections of the film that acknowledge the camera's presence, Wylie speaks about her past work while thumbing through a sketchbook and reads an extensive passage from an essay titled “What are masterpieces?” A treat for both fans of the artist and the filmmaker.



Courtesy of Ben Rivers and LUX, London

열두 개의 풍경 속 감옥

브렛 스토리 | 미국, 캐나다 | 2016 | 90min | DCP | Color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금률과 함께 사법 시스템의 영향력이 교도소 담장 너머까지 미치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브렛 스토리 감독의 <열두 개의 풍경 속 감옥>은 뛰어난 영상미와 세련된 구성으로 교도소가 아닌, 교도소 주변 풍경과 사람들을 담아낸다. 교도소 자체보다는 거기에 연관된 돈, 가족, 일에 대한 관찰에 집중하면서 현실 속 다양한 삶의 양상들을 보여 준다. 교도소 내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지역 주민들, 지나치게 많은 벌금을 내는 경범자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시의 부동산 요새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삽화처럼 펼쳐 보이면서 감독은 교도소 왕국의 일상적인 면들을 매혹적인 에세이 형식의 묘사를 통해 엮어낸다.

The Prison in Twelve Landscapes

Brett Story | USA, Canada | 2016 | 90min | DCP | Color

The United States has the highest incarceration rate in the world, with the tentacle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aching far beyond the prison walls. Brett Story's deftly photographed and elegantly structured *The Prison in Twelve Landscapes* shows how this reality is shaping all facets of life by filming not prisons but the areas and people all around them, connected by proximity, money, family, and work. Through vignettes showcasing communities desperate for prison jobs, people paying exorbitant fines for minor offenses, and the making of urban real estate fortresses across the country, Story weaves together a captivating essayistic depiction of our quotidian carceral nation.



죽음은 느리게 전진한다

마우로 에르세 | 스페인 | 2014 | 74min | DCP | Color

2015 로카르노영화제 특별심사위원상 수상작이기도 한 마우로 에르세 감독의 이 느린 서사시는 화물선과 화물선이 가로지르는 대양의 모습을 완전히 비현실적인 경험으로 전환시킨다. 우크라이나와 뉴올리언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화물선의 여정은 마침내 기계음이 창조해내는 초자연적인 소리, 즉 추상적인 순간을 향해 속력을 줄여 나간다. 시선을 압도하는 일출처럼 완전하면서도 고독한 비주얼은 영화관의 큰 스크린으로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에르세 감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잔하게 필리핀 선원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다.

Dead Slow Ahead

Mauro Herce | Spain | 2014 | 74min | DCP | Color

Winner of the Special Jury prize at Locarno 2015, Mauro Herce's slow epic transforms a commercial freighter and the landscapes it traverses into a truly surreal experience. Tracing the ship's journey from Ukraine and New Orleans, time eventually decelerates to the point of abstraction, the sound of its machinery creating an otherworldly atmosphere. The immaculate, solitary visuals—which have the power to distort sights as familiar as a sunrise—demand to be seen inside a theater. More incredibly still, Herce manages to deliver slices of the Filipino crew's lives—and then effortlessly transition back to the alien.



변방의 시인

쥘안치 | 중국 | 2015 | 103min | DCP | B&W/Color

2002년 9월에 촬영된 이 거친 사운드의 흑백영화는 중국의 외딴 자치구 신장 위구르를 배경으로 한 남자의 여정을 외설스러우면서도 영리하게 담아내고 있다. 명목상 직업이 서기인 남자 주인공 슈는 첫 장면에서부터 침대 위에서 여성과 함께 등장한다. 어느 날 그는 출장을 가기로 결심하는데, 출장이라기 보다는 실상은 먹고, 마시고, 지저분한 바비큐 음식점과 호텔에서 만난 트럭 운전수나 버스 동승객들과 나누는 수다가 대부분인 여행이다. 지내기 힘든 날씨와 환경, 인적이 드문 고원과 울퉁불퉁한 도로 등 열악함을 이겨내는 그의 경험은 자신의 여정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담은 16개의 시문에 녹아든다. 2015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Poet on a Business Trip

Ju Anqi | China | 2015 | 103min | DCP | B&W/Color

Originally shot back in September of 2002, this lo-fi, black and white adventure across China's remote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is both bawdy and astute.

First seen mid-coitus in Beijing, the titular scribe Shu decides to go on a "business trip"—which consists of drinking, eating, and chewing the fat with truck drivers and fellow bus passengers in seedy barbeque joints and hotels. Against inhospitable, scarcely populated plateaus and bumpy roads, his experiences yield 16 poems that sardonically capture his journey.

Grand Prize winner of the 2015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안나>
알베르토 그리피
마시모 사치엘리

Anna
Alberto Grifi
Massimo Sarchielli



<그것의 의미>
벤 리버스

What Means Something
Ben Rivers



<하나.둘.셋>
뱅상 미센

One.Two.Three
Vincent Meesen

기간

2016. 9. 21(수) — 10. 23(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MMCA필름앤비디오

입장료

서울관 통합관람권: 4,000원

대학생 및 만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 (18:00 — 21:00)

주차

운영시간 (매일): 08:00 — 23:00

시간당 2,000원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링컨센터 필름 소사이어티

Event

Sep. 21(Wed), 2016 — Oct. 23(Sun)

Venue

MMCA Film and Video

Admission Fee

Tickets for exhibition at MMCA Seoul: 4,000 KRW

Under 24 or over 65: Free

Wed. Sat Free admission on extended
opening hours (18:00 — 21:00)

Parking

Daily Hours: 08:00 — 23:00

2,000 won per hour

Co-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Film Society of Lincoln Center

Co-organizers



Supporters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소격동 165)

+82 2 3701 9500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65, Sogyeok-dong)

+82 2 3701 9500

www.mmca.go.kr

artmu.mmca.go.kr

youtube.com/mmcakorea

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 (Kor)

facebook.com/nmmcakorea (Eng)